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작년 11월 문을 연 '해의 과학 기술 정보 네트워크(OSTIN)' 과학 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던 해의 과학기술 정보를 한데 모은 OSTIN은 2300여 명의 과학기술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교도 만드자

전달하는 등 정보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생일이나 학위취득을 비롯해 개인적 신상에 관한 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축하하는 등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인터넷은 학술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고계학술단체들도 불교 관련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myhome.netso.co.kr/buddhism), 한국불교연구원(kbs.or.kr), 고려대장경연구소(sutra.re.kr), 인도철학회(bora.dacom.co.kr) 등의 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목록과 논문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

불교학술 정보 공유체계 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들도 다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회나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떨어지는 학술논문과 학회 활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논문 목차나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인터넷의 활성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발맞춰 이들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각 단체가 지금까지 개별적인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공원 제도개선위 구성하자”

조계종-시민·환경단체, 정부에 공식제안 '사찰과 공원' 워크숍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 환경부 합동 가칭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과 중앙종의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여연)가 공동 주최로 6월 28일 열린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워크숍' 발제자로 나선 현웅스님(종회의원)은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발청으로 공원관리청을 설치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를 민간합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운동단체 및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환경전공 교수(호남대 오규관 교수, 서울시립대 김용근 교수) 등은 현재의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칭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신종사와 현웅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낸 참여연대의 박인식 시민관리부장은 "공정적으로 생각한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르면 다음 주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원회 참여를 제안하고, 초기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지역 사유지의 최대 소유주이자 지난 1천여년 동안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던 주체로서 앞으로 만들어질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관리공단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와 더불어 바람직한 국립공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행 공원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었다. 워크숍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공원관리청 혹은 국립공원관리청의 설립이 필요하며 △공원관리 예산은 현행 공원임장료를 제외하고 정부예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양정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국립공원 관리 현황과 이용실태 및 개선방향'(김용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국립공원의 특수성에 따른 사찰의 비종교와 새로운 역할'(오규관 호남대 도시·조경학부 교수) 발제와 조태경 녹색연합 생태보존부 간사, 정의경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 박인식 참여연대 시민관리부장, 현웅스님(종회의원)의 토론으로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중교지도자 평양방문 북에 제의”

박지원 문화장관 밝혀

박지원 문화장관부장은 6월 26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중교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있을 언론사 사장단 회의 평양방문 때 남한 종교인들이 동행해 단체방북하는 것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참석한 종교인들이 단체방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교류는 ‘민족의 눈’으로 폭넓게 봐야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라면 종교인의 단체방북도 충분히 제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박정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최창규 성균관총장, 김광욱 천도교 교령,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유전자지도 초안 발표

도덕·윤리성문제 대두

“유전자 지도” 초안이 6월 26일 공개됨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의 새시대가 열리고 질병극복에 커다란 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맞춤인간’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 유전정보 누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사회·도

덕·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다각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불교가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시대에 맞는 교리적 해석을 통해 제능 프로젝트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영우 기자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성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사색 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성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야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준 비 물 : 도시락,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미음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야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준 비 물 : 도시락,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미음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1정국토1번지 지리

6월 29일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서울 조계사에서 중요공원을 거리를 행진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영배 기자>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연대 '출범'

연환경 수호를 위한 감독·조정기능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범불교연대는 앞으로 △지리산생태·문화·관광·생태·종교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지리산생태·문화·관광·생태·종교환경'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실상사 수경스님(상임대표)과 청와종회 부의장, 해담선우도당 상임대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기병 포교사단장, 전안호 대봉정회장 등 6인을 범불교연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경주 세계문화유산 등록 확실히

문화재청은 6월 29일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제24차 의장단 회의에서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회의에 권고기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두 유적지구는 11월 27일부터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정식 등재될 전망이다. <권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한불교예술원
■ 단급·특급 법당내부 시공 수리 전문
■ 목공예·영단·대웅전·단청·탱화·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16 나한 木 500 나한

규격×높이 : 1자 (30cm)

나한이란? 모든 사람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고 공덕을 두루 갖춘 성자를 말합니다.

나한의 공덕

1. 살적(殺賊) :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 응공(應供) :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해야 합니다.
3. 불생(不生) : 나한은 버릴 낚는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마음의 적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습니다.

木 나한의 특징

- ◆ 흩어 담긴 작품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 ◆ 반가적으로 보시해 드립니다.
- ※ 스님의 주문에 따라 상호와 크기(규격)를 별도 제작해 드립니다.
- ◆ 전화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효성빌딩)
대표전화 : (02) 494-4890